

광주 원어민 교사수 37명 전국 꼴찌 영어교육 강화 어떻게 하라고...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현황

시도	계
서울	719
부산	236
대구	121
인천	247
광주	37
대전	66
울산	43
경기	1,024
강원	171
충북	79
충남	223
전북	81
전남	249
경북	120
경남	270
제주	122
계	3,808

경기 1,024명, 부산 236명 비해 턱없이 부족

차기정부가 영어 교육강화를 내용으로 한 교육정책을 연일 내놓고 있지만 광주·전남지역의 전반적인 영어 교육 인프라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어몰입교육이 완벽하게 가능한 원어민 교사들의 숫자가 광주의 경우 수도권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적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2007년 9월 현재 전국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수는 3천808명으로 경기도에 가장 많은 1천249명이 근무하고 있는 반면, 광주

지역의 원어민 교사는 37명에 불과하다. (표)

원어민 교사가 가장 많은 경기도와 광주시를 비교할 경우 영어 교육 인프라 격차는 엄청나다. 초중고교의 숫자를 비교할 때 경기도는 1천786군데, 광주시는 261군데로 경기도가 광주시에 비해 6.8배 많다.

그러나 원어민 교사는 경기도가 무려 30배 가까이 많고 광주지역의 열악한 영어 교육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광주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대전과 울산의 경우 원어민교사가 66명, 43명으로 나타났다.

경기에 이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수가 많은 곳은 서울로 719명이었으며, ▲경남 270명 ▲전남 249명 ▲인천 247명 ▲부산 236명 ▲충남 223명 등이 뒤를 이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원어민을 채용하고 싶어도 자원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광주나 전남에서 근무하려는 외국인들이 거의 없어 원어민 교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또 서울이나 경기도의 경우 지자체가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서 더욱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전남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이주 여성들이 소정의

교육을 받은 뒤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데, 이들의 숫자까지 포함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원론적으로 원어민 교사 확보에 불리한 위치를 갖고 있는 광주가 다른 곳에 뒤지지 않는 영어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교사의 원어민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인수의위와 새 교육정책 발표 등에 관계없이 연수 등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영어교사 심화 연수 5년동안 6.4% 불과

새 정부의 영어교육 강화 계획에도 불구하고 정작 영어 심화연수를 받은 초·중등 영어교사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영어 교사 능력 향상을 위해 학습 등 방식으로 수개월간 진행되는 심화연수를 받은 초·중등 영어교사는 최근 5년(2003~2007년)간 총 2천126명으로 전체 영어교사(3만3천162명·2007년 6월 현재)의 6.4% 수준에 불과하다.

연도별로 ▲2003년 200명 ▲2004년 245명 ▲2005년 333명 ▲2006년 396명 ▲2007년 952명 등이 심화연수를 받았다.

지난해의 경우 광주는 42명(초등 14명·중등 28명), 전남은 25명(초등 10명·중등 15명)만이 연수 인원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초·중등 영어교사 수는 1천100여명이며 전남은 1천435명이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젠틀맨비노기 의점

전남선 비대중-KTP 레이저
신장·요관결석·충격파 쇄석기
남성수술클리닉, 여성 요실금 수술
상담전화 (062) 233-5119



광주지하철 장애인 수호천사

장애인 승객을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안내하는 도우미 제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주 지하철에 도입됐다. 지하철 역사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80여명으로 구성된 '광주지하철 장애인 수호천사'가 29일 발대식 직후 금남로4가역에서 도움을 요청한 장애인 승객을 전동차에 태우고 있다.

광주지하철 장애인 수호천사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영광 분청사기 가마터 4곳 파헤쳐져

영광군에서 분청사기 가마터 4곳이 파헤쳐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영광군과 영광경찰서에 따르면 19일 백수읍 길용리 야산에 있는 분청사기 가마터 4곳이 약 1m 깊이로 파헤쳐진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가로 세로 1~3m 크기의 이들 구덩이는 고려말~조선초에 분청사기를 구웠을 것으로 추정돼 전남도가 유물 산포지로 지정한 곳이다.

경찰은 “현장 조사 결과 누군가가

유물이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땅을 판 것으로 추정된다”며 “도굴범의 소행인지 판단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사유지라도 유물 산포지로 지정된 곳에서는 땅을 파기 전에 관할 군청에 신고한 뒤 문물 발굴을 금지하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기를 구웠을 것으로 추정돼 전남도가 유물 산포지로 지정한 곳이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새 1만원권 위폐 '주의'

최근 새 1만원권 위조 지폐가 잇따라 발견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29일 올 들어 위폐 일부본과 진폐 일부본을 이어 붙여 만든 새로운 유형의 새 1만원권 위조 지폐 16장이 금융기관 및 한은의 화폐정리 과정에서 발견돼 경찰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이 위조 지폐는 앞면의 3분의 1 정도는 위폐며 세종대왕 초상이 있는 나머지 3분의 2는 진폐로, 두 개 조각을 반투명 테이프로 이어 붙인 게 특징이다.

/연환뉴스

광주지법 이혼 위자료·양육비 기준 마련

부부 이혼시 법원이 관례에 따라 재량껏 판단해왔던 자녀 양육비와 위자료 산정을 위한 객관적 기준이 마련됐다.

또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기준도 마련돼 그동안 재판부별로 들쭉날쭉했던 산정액 편차가 줄어들고 소송 기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29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법원

에 이르게 한 원인이 증대한 경우에는 이와 같이 산출된 금액에 법원이 재량에 따라 일정 액수를 더할 수 있다.

이혼에 따른 양육비는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월 가용소득의 30%를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비양육 부모의 소득이 월 600만원이고 자녀가 3명이 라면 비양육 부모가 양육 부모에게 지급할 양육비는 30%인 180만

양육비 월 가용소득의 30% 위자료는 기본 3천만원으로

은 최근 법원장과 가사·손해배상 사건 담당법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위자료·양육비 액수와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의 위자료 등을 산정하는 기준을 세웠다.

우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위자료의 경우 기본 액수는 3천만원으로 정했다. 다만, 혼인기간이 실질적인 혼인생활의 정착기간 1년 미만일 경우 50% 범위에서 줄어들고, 자녀 양육이 마무리되는 30년 이상일 경우에는 50% 범위에서 증액된다.

또 혼인생활 파탄에 대한 청구인의 책임비율이 고려되고 파탄

원이 되고, 이 돈을 자녀 수로 나눠 1인당 6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단, 월 소득이 현저히 많은 경우 비율은 줄여줄 수 있으며, 산정 금액이 자녀 1인당 30만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소득의 30%를 넘더라도 1인당 30만원을 양육비로 부담해야 한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위자료는 6천만원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모두 상실(사망한 경우 포함)한 때에는 6천만원을 지급하되, 피해자의 과실 여부와 노동능력 상실률 등을 두루 감안해 조정토록 했다. /최권일기자 cki@

설 대목 노린 강·절도 잇따라 '불안'

설 명절을 앞두고 광주에서 강·절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28일 밤 10시30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F편의점에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강도가 침입, 주인 흥모(26)씨 등 2명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과 상품권 등 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

앞서 지난 25일 오후 7시께 서구 쌍촌동 B아파트에 사는 이모(여·33)씨의 집에 절도범이 침입했으나 이씨가 소리를 지르자 곧바로 도주했다. 또 지난 22일 낮 12시40분께 북구 문흥동 탁모(여·52)씨의 집에 20대로 추정되는 남자가 흉기를 들고 침입, 현금 26만원을 빼앗아갔다.

경찰은 170cm의 키에 마른 체격을 한 2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의 뒤를 쫓고 있으나 범행 당시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편의점과 주택가 등

지를 중심으로 탐문수사를 벌이고 잠복근무에 나서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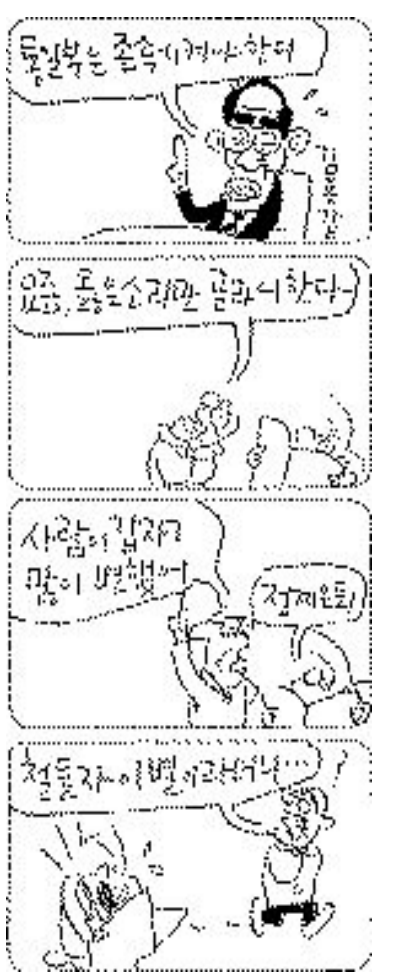
밀가루 반죽기에 끼여 중국음식점 주인 숨져

29일 오전 8시30분께 광주시 동구 대인동 C 중국음식점 주방에서 주인 강모(55)씨가 밀가루 반죽기에 몸이 끼여 숨져있는 것을 주차장 관리인 이모(65)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려 음식점으로 가보니 강씨가 밀가루 반죽기에 팔과 머리가 낀 채 숨져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강씨가 밀가루 반죽을 하던 중 옷소매가 반죽기에 끼여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안환주기자 ahj@

나원침 (7421) 김중두



다 좋은 건데...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제작 및 상담연락

▶ 서울본사 : 02) 3445-0943
▶ 나주광원 : 061) 337-0571

채팅 친구들과 이모집 털어

광주서부경찰은 29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친구들과 함께 이모집의 금품을 훔친 윤모(17)양 등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감아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윤양 등은 지난 7일 새벽 2시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B아파트에 사는 이모(여·33)씨의 집에 들어가 목걸이와 반지 등 시가 4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광소 이모집 아파트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윤양은 3개월 전 가출한 뒤 생활비가 떨어지자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광주 S대 안모(21)씨 등 2명에게 범행을 제안, 이 같은 짓을 저지르게 됐다.

경찰은 이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아파트 승강기에 설치된 CCTV 화면을 분석한 끝에 이들을 검거.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various services including real estate, education, and local businesse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코오통서적잡주' and '전남선 비대중-KTP 레이저'.